

# “학술에 치우치지 말고 읽을거리 늘려 大衆科學誌로 전환해야”

## 金始中 과기처장관

대담 閔英基 <경희대 교수/본지 편집위원>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간 「과학과 기술」지가 1968년 1월 창간된 이후로 지령 300호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역사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까지 장관께서는 과총 회장으로 계시면서 「과학과 기술」지의 혁신호 발간을 주도하셨고 이 잡지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동안 「과학과 기술」지를 보시면서 느끼신 점과 아울러 축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중산층 대상 정보지로

먼저 과학기술종합정보지로 27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과학과 기술」지의 창간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학과 기술」지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현대감각에 맞는 체제를 갖추어 중산층 이상이

읽고 즐길 수 있는 정보지로서 그 위상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중적인 읽을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 학술적인 면에 치우친 감이 있고 지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면을 확대하고 대중적인 아

본지는 지령 300호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의 책임자인 金始中 과기처장관과 4월7일 과기처장관실에서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閔英基 본지 편집위원(경희대 교수)과의 대담을 통해 김시중 장관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진흥책에서부터 북한핵문제에 이르기까지 평소 과학기술행정철학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이템을 선정해서 과학기술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



「과학과 기술」지령 3백호를 맞아 김시중 과기처장관(右)이 민영기 본지 편집위원과 대담하고 있다.



◇金始中 파기처장관은 “우리 과학기술계가 무엇보다 자율성과 창조성으로 함께 일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대중과학잡지로의 방향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보급되는 매체로, 읽힐 수 있는 잡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학기술처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신지 1년3개월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번영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떠한 기본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선진국 진입으로 매진

과학기술의 행정은 현실과 괴리된

사고방식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자율성과 창조성으로 함께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며 그런 다음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면서 조화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저는 기회가 닿는대로 대학·기업체 할 것 없이 여러 연구현장을 돌아보면서 연구소들의 시설과 현황을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에 열심히 귀기울였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과학기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국제화·전문화·일류화’라는 3대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정상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국제화를 이루어, 과학기술 정책이나 연구계획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전문가가 되고, 나름의 독특한 기술을 확보하여 1등이 되자는 겁니다. 이런 각오로 서기 200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7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역대 과학기술처 장관중에서도 연구현장을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다니시면서 연구 종사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과학기술인들의 의식이 취임 당시에 비해서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과학기술인들의 의식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신감 갖고 임해달라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현장을 가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갖게 됩니다. 작년 초만 해도 연구원들의 질문이 상당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발전적이고 충고어린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다 문민정부의 뜻이 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개혁이 어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입니까? 아직도 전체 과학

기술인의 30~40%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국가발전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감과 더불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감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재직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어둡게 봤으나 장관 취임후 연구 및 산업현장을 돌아보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걸음을 가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가면 그것이 곧 의식개혁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도 그 기반이 튼튼할 때만 발전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 학술지지원 대폭 확대

현재 기초과학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한 요인을 대략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연구비가 턱없이 모자라고 상호 협동마저 잘 안되니 큰 업적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연구결과를 널리 알리고 제대로 활용할 줄도, 관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과학기술 예산 가운데 연구비를 현 7%에서 98년도까지 12%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대학에 연구비 지원은 물론이고 연구시설과 기자재를 보충할 목적으로 기초과학지원센

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회를 육성하는 겁니다.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산업체 그리고 연구소를 한데 묶어 협동연구를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여 좋은 결과를 낳도록 유도하며 재정적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기초과학 수준

고를 적극 권장하며 이를 발행한 학회가 그 논문의 리프린트를 한국과학재단으로 보낼 경우 1편당 3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논문을 발표하는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학회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학회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것입



◇민교수가 김정관에게 평소의 과학행정철학과 본지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고 있다.

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SCI에 가입하지 않은 잡지에 발표하기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CI의 가입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보다 많은 학회가 가입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충을 통해 SCI에 가입한 학회에 대해서 한 잡지당 지난해 5백만원에서 올해는 1천만원으로 늘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잡지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의 연구논문 투

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최근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의 과학기술이 과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북한 전쟁무기화 의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의 과학기술이 핵폭탄을 비롯한 전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재처리과정을 거쳐서 질량 차이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화합물 상태에서 분해하여 금속가루로 만들고 이것을 성형해서 중성자 충돌에 의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임계질량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지하실험을 해 봐야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재처리는 가능해도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난 기술과 시일이 요구됩니다. 북한이 지하실험을 했다면 지진계로 잡아낼 수 있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요. 북한이 85년도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쟁무기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소련이나 중국에서 공급할 리는 만무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관 집무실을 들어오다가 보니 문 옆에 핵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핵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하시기 위한 것 같은데 이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핵폐기물처리장 건립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요?

### 「핵폐기물처리장」 특혜

국민들은 핵하면 우선 원자폭탄부터 떠올리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원자력산업의 복합시설로서 모델케이스격인 영국의 셀라필드(Sellafield)는 관광명소로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을 예로 들어 설득해도 일반인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

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정부에서도 작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하고 제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십시오"라는 광고도 했지요. 제정된 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처리장이 건립되는 지역에는 지역개발의 혜택 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관 취임 이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꺼리나 보람도 있으셨을텐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불신의 골 먼저 메워야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신물질을 창출해서 외국으로 수출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임장관들과 공직자,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이 기업화되었을 경우, 종전에는 이익의 20%만 본인이 가졌으나 이제부터는 20~80%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배당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연봉이 8천만~1억2천만원이나 되는 연구원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거액의 연봉이 운동선수들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에게도 가능해져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참으로 기분좋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불신의 결과 정책의 방향을 의심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고 협조하지도 않는 겁니다. 당장은 섭섭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신뢰성을 회복하여 정부와 국민들간의 불신이 하루 빨리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신의 골을 메우는 것은 문민정부가 해야 할 몫이지요.

끝으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단결로 권익을 찾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자신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단결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단결력이 약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한데 뭉쳐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것은 누가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 말씀대로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인 모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과학과 기술」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발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